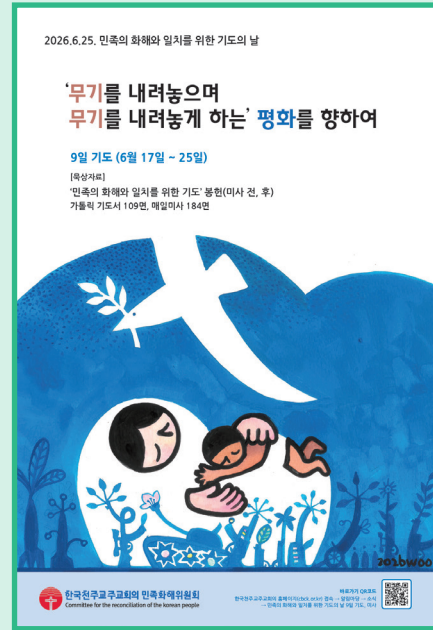


가해·제2386호  
연중 제12주일  
2026년 6월 21일

# 춘천주보



2026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포스터

## 목 차

02 말씀의 향기  
두려워하지 마라

03 사제 단상  
개와 늑대의 시간

04 특집  
우리 신앙의 뿌리-공소(公所)<sup>4</sup>

05 담화 요약  
2026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06-07  
교구 및 교회 소식 · 알림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 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 입당송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 제1독서

예레 20,10-13

## 화답송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 제2독서

로마 5,12-15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 복음

마태 10,26-33

##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박명수 가브리엘 신부  
봉평 성 루카 본당 주임

##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예레 20,11).

오늘의 1독서와 복음은 파견한 분께서 파견된 이들을(예레미야와 사도들) 격려하시는 대목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그 어떤 박해와 고난을 겪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파견하신 분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절대적인 의탁을 잊지 말라는 당부 말씀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너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느님을 물음에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창세 3,10)하는 대목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두려움의 바탕에는 하느님을 ‘차별하시는 분’으로 여긴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곧, 에덴이라고 하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 모든 것을 맡겨 주실 정도로 자비롭고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느님과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겨난 ‘원죄’는 단지 ‘금기사항을 위반하여 생겨난 죄’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하느님을 왜곡하여 생겨난 잘못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베푸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빼앗는 하느님, 자유보다는 속박하는 하느님, 용서보다는 처벌하는 하느님으로 왜곡한 것, 그것이 원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심은, 당신께 믿음과 신뢰를 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곧, ‘머리카락까지도 낱알이 다 세어두셨을’ 만큼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보살피고 돌보시는 하느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지만” (로마 5,12 참조), 이천 년 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 (로마 5,15)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어 파견된 이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아픔에 응답하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입니다.



## 개와 늑대의 시간

### 1.

해 질 무렵 날 끌고 가는 발걸음,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는 데 저 앞 아파트 창문에 무언가가 푸드덕거렸다. 꺼멓기도 하고 희끗하기도 한 걸 보니 까치 같았다. 저 새는 왜 저러나 싶은 순간 창문 안으로 쓱 들어가 버렸다. ‘저 집은 베란다 창문을 열어 놓았구나’ 생각하며 가던 길을 가는 데 그 새는 다시금 창밖으로 나와 푸드덕거렸다. ‘우리 집 창문은 잘 닫고 다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혹시 저 새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원래 저 집 베란다에서 사는 새일까? 아니면 주인이 맛있는 먹이를 제공하는 따뜻한 사람일까? 아니면 동화 속에서만 보아오던 박씨를 물어주는 은혜 갚는 새는 아닐지 별별 생각을 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진귀한 상황이라면 얼른 찍어서 동물농장에 보내려고 핸드폰도 꺼냈다. 하지만 찍지는 않았다. 아주머니께서 빨래를 다 털고 창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다.

### 2.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기에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향했다. 저 앞 화단에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그것은 때로는 규칙적으로 때로는 불규칙적으로 몸을 떠는 것 같았다. 땅을 파고 있는 걸까? 무언가를 뜯어 먹고 있는 걸까? 또다시 궁금증이 생겨났다. 덩치가 큰 녀석이라면 피해 갔겠지만 보아하니 만만하게 보여 가까이 가보기로 했다. 한 손에는 역시나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한 채. 하지만 찍지는 않았다. 내가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 까만 비닐봉지는 바람에 휩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 3.

개와 늑대의 시간. 해가 누엣누엣하여 어두워질 무렵, 저 언덕 너머의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대를 나타내는 프랑스어 관용구 「L'heure entre chien et loup」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는 비단, 개와 늑대 즉 안전함과 위험함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때로 선과 악, 진실과 거짓, 관심과 외면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간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으나 때로는 확고하고 뚜렷한 구별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구별하며 살아가자.

기후 난민을 위해 기도하기

# 公所

## 우리 신앙의 뿌리-공소(公所) 4

### 발산(장본) 공소

2006년 발간된 <우리의 뿌리>를 다시 읽으며, 우리 신앙의 원천을 되새깁니다.



춘천 시내에서 19번 발산리행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아침 못 정류장에도 도착하게 된다. 맑은 공기를

심호흡하며 10여 분 정도 걸으면 몇 채의 농가 사이에 공소 건물이 고즈넉이 서 있다.

이 주변에는 아침못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연못이 있는데 이름과 달리 욕심 많은 부자와 착한 며느리의 전설이 스며 있다. 여기에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려는 교우들이 모여와 용기를 구우며 신앙촌을 이룬 곳이라, 용기점말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곳이 교회 문서상에 처음 나타난 것은 1920년으로 김유용(필립보) 신부가 풍수원 성당에서 춘천 지역을 분할받아 사목하면서 주교님께 드린 '춘천 지역 전체 보고서'에 장본(章本)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서 3대째 살고 있는 원발아(발바라 77세) 할머니에 의하면, 구강당(公所)을 짓기 전에는 염정필(시몬) 회장 댁에서 미사를 올렸다고 한다. 그 후 산삼을 캐서 땅을 구입하여 부자가 된 원발아 할머니의 조부이신 원 로렌조께서 지금 공소에서 100-200m 뒤쪽의 땅을 기증하여 강당을 짓게 되었고, 초가집이기는 했어도 넓어서 가운데를 사람 어깨높이만큼 막아 남·녀 좌석을 구별하고 미사를 드렸다고 한다.

역시 이곳에 3대째 살고 있는 김유성(요한), 허영선(라파엘) 전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6·25 때 피난 갔다 와 보니 구강당이 화재로 손실되어 그 당시 회장이었던 김성문(시몬)이 지금의 공소 땅을 마련해 주셨고, 미군들이 자재를 가지고 와서 신자들과 함께 공소를 지었다고 했다.

1920년 9월 이후 죽림동 성당에 소속되어 30여 년 신앙을 가꾸어 오던 발산 공소는 1949년 1월 소양로 성당 설립으로 그 관할이 되었다. 1999년 9월 우두 성당 탄생으로 우두 본당 발산 공소로, 발산 1·2리 산천 1리 유포 1·2리 등 주변 마을 신자들이 최득경(아우스딩) 회장과 2년째 공소에서 기거하는 권정예(말찌나) 봉사자와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신앙을 가꾸고 있다. 이곳의 신앙 역사를 보면서 맹석철, 허동선 두 분 신부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오상철 본당 신부와 이곳 신자들의 열정적인 기도가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사제, 수도자의 성소가 피어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

(좋은이웃 2001년 11월호)

### 오늘날의 발산 공소

관할 **샘밭 본당 033-241-6613**  
(기존 우두 본당에서 변경)

주소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346-10**

신자수 **총**  
(2025 기준) **남 36 여 53 89**

미사안내 **주일 18:30(10~4월)/19:30(5~9월)**



교회문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담화 원문 보기

2026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 한반도에서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를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6년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81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공동의 집에 살고 있는 남과 북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해 8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분단 80년을 맞아 특별 사목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서한에서 남북은 그동안 불신과 미움의 마음을 키우며 무기와 군사력을 방패 삼아 상대를 굴복시키려 해 왔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얻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고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는 평화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뒤, 한반도에서 긴장을 낮추고 대화를 나누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남북 관계는 아직도 경색되어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도 계속된 대화 단절과 불신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의 전쟁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갈등은 만남과 대화, 그리고 신뢰 회복으로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중동 지역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도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제 현실과 더불어 안타깝지만 한반도에서도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은 남북의 민족 공동체성보다 서로 다른 두 국가성을 강조하며 남북이 서로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남북은 분명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방향이 대화를 가로막고 적대성을 더욱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의 당국자들이 공존, 공영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지혜롭게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남북이 각자의 마음에서 적대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의 처지에서 이해

하려고 노력할 때 그동안 가졌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문제부터 마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이 전쟁의 상처를 보듬는 일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가 그 존재조차 잘 모르지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는 북한 군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6·25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수습된 북한군의 유해를 묻어 조성한 곳입니다. 1996년 우리 정부가 국군 유해를 발굴하다가 함께 수습한 북한 군인들의 유해를 안장하며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돌아가야 할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적대감을 낮추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당국자가 북한군의 유해 송환을 이념과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나설 수 있기를 빕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관계 맺기의 시작이고, 미움의 마음을 협력의 마음으로 바꾸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미움을 화해의 길로 돌리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다고 해서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맡겨 주신 사명 곧 평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는 어렵고 힘든 문제보다 단순하지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과 적대감이 더욱 낮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와 노력은 남북 사이에 ‘무기를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2026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날 미사  
6. 25(목) 19시, 솔모루 성당

견진 성사  
초당 분당: 6. 27(토) 18시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6. 21(주일) 알로이시오  
임홍지 신부

6. 21(주일) 루이스  
방기태 신부

6. 24(수) 요한 세례자  
정영우·이상철·이동수·김혜중·박종수 신부

고 안토니오 신부 76주기



생년월일 : 1913.  
수품일 : 1938.  
선종일 : 1950. 6. 27

진 야고보 신부 76주기



생년월일 : 1911.  
수품일 : 1935.  
선종일 : 1950. 7. 4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지향

방법: 미사 전·후 기도문 함께 봉헌  
기도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109면 / 매일미사 184면)

- 6월 21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 6월 22일: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 6월 23일: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를 위하여
- 6월 24일: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 6월 25일: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무료 진료  
6. 21(주일) 13시, 솔모루이주민센터

6월 예비 신학생 모임  
6. 21(주일) 14시, 중부: 흥천 성당 / 서부: 포천  
성당 / 영동: 노암동 성당 / 영북: 청호동 성당  
6. 28(주일) 14시, 춘천·남춘천: 우두 성당

성령새신봉사회 기도회  
6. 23(화) 19~22시, 소양로 성당(미사: 19시)  
기도회진행: 성령강림사도수녀회  
☎ 010-6703-3133 문의

사목평의회  
6. 24(수) 21시, 비대면

8차 말씀품기 피정  
6. 24(수)~25(목) 15시, 가톨릭회관

9차 말씀품기 피정  
6. 27(토)~28(주일) 15시, 가톨릭회관

성서백주간 봉사자 교육  
7. 4(토) 12:30~16:00, 교육원  
강사: 박훈민 블루노 신부님  
준비물: 노트, 필기구, 텀블러, 성가책, 미사책  
(미사는 평일 미사로 봉헌됩니다)

강릉아산병원 원목실  
위치: 신관 지하 1층 / 미사: 매 (토) 14시,  
신관 5층 2세미나실 ☎ 033-641-8388

7월 카나 혼인 강좌  
7. 25(토) 18:30, 우두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강원대학교병원 원목실  
위치: 어린이병동 지하 1층  
미사: 매(주일) 10시/어린이병동2층 네트워크실  
☎ 033-258-9487

효자동 본당  
허성호 요엘 부제(살레시오회) 사제품



서품식: 6. 27(토) 14:00, 살레시오 관구관  
첫미사: 6. 28(주일) 10:30, 효자동 성당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갯세마니 피정의집 관리 직원 채용 공고

모집인원: 남자 1명  
업무내용: 피정의 집 내·외부시설관리  
제출서류: 이력서, 본당신부 추천서와  
교적사본, 건강진단서  
마감: 6. 24(수)까지 / 전형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면접일시 후후 개별통보)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메일  
postscrip95@gmail.com  
제출처: 인제군 방어마을길 196  
갯세마니 피정의집  
문의: ☎ 033-461-4243

성소모임 /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천주섭리수녀회	6. 26(금) 15:00~27(토) 13:30	천주섭리수녀회(섭리 영성센터)	010-8753-1851	나를 알아가는 기도 여정에 초대합니다.
예수의끼리따스수녀회 서울관구	6. 28(주일) 10~15시	서울관구 본원(사당역 번 출구)	010-7542-7845	http://icaritas.or.kr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서울 자양동 수녀원(건대입구역)	010-9695-1366	한 사람은 온세상보다 더 소중합니다.
곤벤투알프란치스코수도회	매월 첫째주 주일 14시	서울 해화동 성보나벤투라수도원	010-4344-1997	권정대 베드로 수사 신부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

통큰장어

장어구이(민물장어, 바다장어, 품장어)  
정성껏 고아낸 몸보신 장어탕  
퇴계로 69번길 12번지(보훈회관 앞)  
☎ 253-7108, 010-6373-3914  
홍장성 대건안드레아·최인숙 세실리아

지오건장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도배, 장판, 욕실, 주방시공  
건축, 목공 국가자격증 소유  
☎ 010-8480-1789, 010-4075-2166 이보람 가브리엘

건축물 해체 전문 건축사 행정사

춘천교구 지역 건축물 해체 인허가  
및 철거공사(수익금 일부를 해당  
지역 본당 본인 이름으로 후원)  
☎ 010-4735-6500  
김한근 안토니오

### 인 준 시 설

#### 성골롬반의집 요양보호사 모집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 방문, 팩스, 이메일 colum2004@hanmail.net  
☎ 033-262-0935~6 팩스 262-0937

####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지원 및 기타상담 지원  
개인, 부부, 가족 갈등 상담 (09~18시)  
북한이탈여성 전문 상담 무료 지원  
☎ 033-257-4687 www.cchanlife.com

#### 강릉시 주·단기 이용자(입소자) 모집

장애인 주간이용(나래교실)/단기거주(푸른나래)  
☎ 033-652-5041

#### 갈바리노인복지센터 1 방문재가 어르신모집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만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 및 취사, 말벗,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관  
련 상담도 해드립니다. ☎ 033-644-3477



### 보이스피싱 예방법

정부기관 또는 가족, 지인이  
송금을 요구하거나  
문자 또는 카톡으로 인터넷 주소 확인 후  
인증번호를 요청한다면  
보이스피싱인지 꼭 한번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합니다.

☎ 가톨릭춘천심협 본점(죽림동) 033-255-6742  
지점(거두리) 033-262-6742

### 일 반 알 림


**청주 조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피정**  
매월 마지막 주(토) 14시~(주일) 14시, 조정성  
령회관 /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 1박 2일(3식)  
셔틀버스운행(조치원역, 청주고속버스터미널)  
☎ 043-213-9103, 010-5482-6744

**2026년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캠프**  
7. 17(금)~19(주일) 2박 3일, 회비 15만원  
대상: 현재 중학교 1~3학년  
접수: 7. 7(화) 10시~ 양업고 홈페이지 팝업창  
☎ 043-260-5076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7. 3(금)~5(주일)  
효소단식: 7. 9(목)~12(주일)/8. 4(화)~7(금)  
성경완독: 7. 24(금)~8. 1(토)/8. 14(금)~22(토)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쉼과 함께  
제주여름 우도섬 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7. 18~20/7. 24~27/7. 29~31/8. 1~4  
8. 8~10/8. 14~16/8. 20~23/8. 28~30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 속초 동명동 성당 앞 초고층 아파트 건축 반대 서명



QR 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952년 한국전쟁 중 세워진 석조 성당이  
바로 앞 초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70년 역사를 지킵니다.

**제주산들평화순례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한라산숲길: 7. 17~19 / 우도: 7. 24~26  
올레바닷길: 9. 17~19 / 억새길: 10. 14~16  
마라도 순례: 7. 3~5/7. 10~12/8. 21~23  
추자도 성지순례: 9. 4~7 / 9. 11~14  
10. 31~11. 3 / 11. 14~17 / 11. 26~29  
☎ 064-732-4702 면형의 집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 11 유럽4개국 성모님 3대 발원지 12일 (595만원)  
9. 7 산티아고 117km 도보 순례 12일 (465만원)  
9. 8 이탈리아 (전대사) 특별 순례 11일  
10. 12 체코 독일 폴란드 헝가리 12일  
10. 14 프랑스 이탈리아 메주고리에 12일 (685만원)  
10. 19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 02-319-2533 www.catholictravel.co.kr

**예수회후원회 해외성지순례**  
7. 16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 제한절 연휴  
8. 12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과 안중근의사 발자취  
(하얼빈, 장춘, 단둥, 차쿠, 대련-5일 180만원)  
9. 24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 추석 연휴  
10. 12 발칸 3국 및 메주고리에(10일 498만원)  
10.26 알프스 주변 수도원순례 및 성모성지(12일 64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제주 3박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 (30만원)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20만원)  
일본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 4일 (120만원)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7. 31(금) 14시~8. 2(주일) 16시, 꽃동네 사  
랑의 영성원/대상: 중학생이상부터 미혼 남녀  
회비: 15만원 ☎ 010-5490-5345 문의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 법무법인 중심 강릉사무소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7인 선정  
류재울 변호사(토마스아퀴나스)  
서영우 변호사(이보헬로리)  
☎ 033-920-8416  
류재울 토마스아퀴나스 대표 변호사

####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 서림원-스테이, 카페(평창)

서림원(숙박시설), 카페(커피 등 음료)  
예가체프 콜드브루 맛집  
☎ 0507-1424-5648  
박규홍 라파엘 · 이무현 미카엘

#### (주)광건정비사업소

1급 자동차 종합 정비  
자동차 · 바이크 검사, 조기폐차  
직원상시고용(판공, 도장, 정비, 검사)  
자동차 · 바이크 검사비 전액 기부  
☎ 010-8183-6160 길영환 베네딕도

####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 · 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 오티콘 보청기 속초점

무료 청력 검사 / 이명 난청 상담  
131만원 보조금 / 출장 방문  
☎ 010-5709-2112  
김성현 루치오

#### 나자렛투어 해외 성지순례

10/12 튀르키예 일주 8일 259만원  
27/02/22 탈출기 3국 13일  
449만원, 27/05/03 성모님 발  
현지 3국 12일 499만원  
☎ 1577-7029 총괄 유창현 사도요한

#### 속초 장사향 장사회집

활어회  
대게, 홍게  
☎ 010-8259-3979  
현윤 프란치스코 · 장근해 에멜리아